

『율리시스』에 나타난 다양한 관점: 브린 부인의 이야기*

최 석 무

I. 들어가는 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누구나 사실이자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각 사건이 바라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의 증언, 즉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여 사건을 재구성해야 한다. 20세기 소설가도 이러한 문제에 깊이 고뇌하고 글쓰기에 변화를 가져왔다. 작가를 대변하는 화자가 이야기를 이끌며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전통적 서술 방식에 대해,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를 비롯한 모더니스트들은 현실을 재현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서술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다. 전지적 화자 시점으로 쓰인 문학작품에서

* 이 연구는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성화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는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복수 화자(multiple narrators)를 등장시켜 진실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복수 화자가 등장하는 소설에서 독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에 “같은 사건이 여러 번 다른 시각에서 제시된다”(Chillur 203). 독자는 한 화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 여러 화자의 견해를 종합해 결론을 도출해야 하므로 능동적인 독서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소설에서 “독자는 등장인물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위치에 있다(MasterClass). 또한 독자는 복수 화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누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판단해야 할 수도 있다. 등장인물로서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각 화자가 제공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가며, 주어진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복수 화자를 등장시키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작가는 화자마다 독특한 개성과 특징을 제공해야 한다. “지구상의 어떤 두 사람도 세상을 똑같은 시각에서 보지 않기에, 각 등장인물도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야 한다”(Soule). 스토리 내부 화자는 자신이 목격하거나 들은 내용만을 상세히 전달할 수 있다는 서술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작가는 스토리 외부화자를 통해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외부화자를 통해 “망원경으로 본 것 같은 객관적 시각”과 내부 화자를 통해 “현미경으로 본 것 같은 주관적 시각”을 드러냄으로써 사건에 대한 보다 다면적인 해석이 가능해진다(이석영 136).

한 작품에 여러 명의 화자가 등장할 경우, 작가는 각 화자를 구별하기 위한 특별한 서술 장치를 마련한다. 내던 브랜스포드(Nathan Bransford)는 “다른 인물의 시점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절(section)이나 장(chapter) 구분을 통해 그 전환을 표시하고, 독자가 새로운 화자의 시점에 들어섰음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기존 이야기가 아닌 다른 관점의 에피소드(interlude)를 삽입할 때 “이탈릭체

를 사용하거나 문체를 뚜렷이 다르게 하는” 등 “글의 스타일을 기존 본문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설정”한다(Bransford). 모더니스트 작가들은 이러한 글쓰기 방식의 일부를 자신의 작품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다.

포크너(William Faulkner)는 『소리와 분노』(*The Sound and the Fury*),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As I Lay Dying*) 등에서 각 장마다 다른 화자를 사용하여 복수화자 서술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복수화자 사용 서술은 제시된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관찰하거나 경험하게 하여 사건의 실체를 다각적으로 파헤치는 데 효과적이다. 다양한 관점을 포크너보다 먼저 작품에 적용한 조이스는 이보다 더 복잡한 서술 기법을 『율리시스』(*Ulysses*)에서 사용한다. 18장 「페넬로페」(“Penelope”)는 몰리(Molly)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이 『율리시스』에서 일인칭 화자가 독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장이다. 스티븐(Stephen)과 블룸(Bloom)의 의식이 기술되어 있는 대부분의 장은 두 인물이 중심인물로 등장하지만, 그들은 화자가 아니고 전통적인 의미의 화자도 없다. 특히 다양한 문체상의 실험이 펼쳐지는 10장 「떠도는 바위들」(“The Wandering Rocks”) 이후의 장에서는 데이비드 헤이먼(David Hayman)이 1970년에 『율리시스: 의미의 구조적 작동 원리』(*Ulysses: The Mechanics of Meaning*)에서 제기한 조정자(arranger)가 화자를 대신한다. 조정자는 “작가나 화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서사적 재료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통제하는 자(figure) 또는 존재”이다(84). 1982년 개정판에서 헤이먼은 조정자를 “화자와 함축된 저자(implied author) 사이에 있는 어떤 존재”로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통제의 근원”으로 본다”(122-23). 조정자에 대해 존 소머(John Somer)는 “작가와는 독립된 존재로, 작가와 그의 화자보다 앞서 위치한다. 조정자는 텍스트의 표면을 독자의 눈앞에 배열함으로써, 이야기 전체에 대한 전지적 통제력을 드러낸다”라고 텍스트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67).

조이스는 조정자를 사용하면서, 각 장마다 특정 인물의 관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포크너의 『소리와 분노』나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보다

더 복잡한 서술 기법을 구사한다. 그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 속에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 기법을 삽입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한다. 이때 조이스는 마치 일인칭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듯, 인물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재현하며, 특히 작가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블룸(Bloom)과 스티븐(Stephen)이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과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인칭 화자는 「키클롭스」(“Cyclops”) 장에도 등장하는데 그는 이 장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화자는 아니다. 그의 의식은 스티븐과 블룸의 그것처럼 특정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조정자는 15장 「키르케」(“Circe”)에서는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인물의 행동과 말”을 통해 인물을 평가하는 “극적 방식”을 사용한다. 작가의 개입과 전통적인 서술자를 제거함으로써 독자는 “소설이라는 인쇄된 틀 속에 새겨진 무대”를 본다(Friedman 1178). 독자는 「키르케」 장을 읽을 때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조이스는 『율리시스』의 마지막 장을 몰리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페넬로페」는 『율리시스』 전체에서 한 인물의 목소리만으로 구성된 유일한 장이기에, 여성 주인공인 몰리가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몰리가 각 사건에 관해 서술하는 의견을 곧바로 진실이나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녀 역시 하나의 등장인물로서 자신만의 시각과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는 조이스가 모든 인물은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 의도로 읽을 수 있다. 세 주인공인 블룸, 스티븐, 몰리와 달리, 의식이 직접 서술되지 않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타인에 의해 전해지는 소문을 통해서만 그들의 성격과 내면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현실과 달리 문학작품이 특정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 서술될 수밖에 없는 서술상의 한계를 보여준다.

『율리시스』가 출간된 이래, 블룸과 몰리, 스티븐의 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스티븐이나 보일런에 대한 몰리와 블룸의 상이한 견해는 이미 많은 조이스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등장인물들이 각기 다른 환경과 정체성에 따라 특정 사

건이나 인물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과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밝혀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군소 인물인 브린 부인(Mrs. Breen)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시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브린 부인은 실제로는 8장에서만 직접 등장하지만, 이후 12장, 15장, 18장에서 다른 인물들의 언급이나 환영 장면을 통해 반복적으로 소환되어 여러 관점에서 조망 가능한 인물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브린 부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이스가 등장인물을 다층적인 시선 속에서 구성하는 서술 전략의 함의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본론

브린 부인은 결혼 전 이름이 조시 파우엘 (Josie Powell)로 블룸과 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다. 그녀는 블룸과 몰리가 결혼하기 전에 “몰리의 가장 친한 친구”(U 15.490)이며 블룸의 연인이었다. 브린 부인은 『율리시스』의 4개의 장면에서 다소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8장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Lestrygonians”)에서 블룸이 길거리에서 그녀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장면, 15장 「키르케」에서 블룸이 우연히 홍등가에서 만나는 장면, 18장 「페넬로페」에서 몰리가 말하는 브린 부인, 12장 「키클롭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화자가 묘사하는 브린 부인의 실체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8장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에서 블룸은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브린 부인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다. 이날 블룸의 그녀에 대한 평가는 해당 만남에서 받은 인상에 근거하고 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가족의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대화에 불과하지만, 그 대화 도중 나타나는 블룸의 의식의 흐름을 통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의 내면적 평가가 드러난다. 그녀의 핸드백은 “헤진 가죽”(U 8.239)으로 되어 있는 “지저분한 백”(U 8.264)이고, 그 안에는 “더러운 손수건,” “약병”(U 8.243-44)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녀의 현재의 경제적 및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블룸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자용 편”이 “전차 안에서 사람의 눈을 찌를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U 8.239-40)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5장 「로터스 먹는 종족」(“The Lotus Eaters”)에서 마사(Martha)의 편지에서 발견한 편을 보고 편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과 다르다. 그는 “여자들은 항상 많은 편을 가지고 다니다니 신기해. 가지 없는 장미는 없지”(U 5.277-78)라고 편을 예쁜 여성이 반드시 소지하는 필수품이라고 본다. 현재 자신과 펜팔을 하면서 호감을 지닌 여성이 지닌 편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결혼과 더불어 변해버린 옛 애인의 편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통해 브린 부인에 대한 그의 감정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블룸은 디그넘(Dignam)의 장례식에 다녀온 이야기를 한 후 그녀의 “남편”(husband, U 8.226) 이야기로 화제로 바꾸는데, 이때 그녀의 남편을 “주인님”(lord and master, U 8.227)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호칭은 그녀의 남편이 가부장적인 권위를 중시하는 인물임을 암시한다. 브린 부인이 잠시 후 그녀의 남편을 다시 만나자, 브린(Breen)은 “칙칙한 회색 수염을 그녀 쪽으로 내밀면서”(U 8.312-13) 말을 한다. 그의 수염은 남성적 권위의 상징으로 “발에 걸려 넘어질”(U 12.1063) 정도로 길다. 블룸의 예상대로 그녀는 남편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다. 그녀의 남편은 “U.p: up”(U 8.258)이라고 쓰인 우편 엽서를 당일 아침에 반자 화가 나서, 보낸 사람을 찾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려 한다. 그녀는 블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멀리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자, 하든 말도 갑자기 중단하고 가버린다. 블룸은 브린을 파렐(Farrell)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 가깝다고 여기며, “저런 사람과 같이 사느라 힘들겠네”(U 8.318-19)라고 그녀를 은근히 동정한다. 이 장면에서 독자는 “모호하고 사소한 이유로 법적 절차를 밟은 브린”과 “모욕적인 말을 묵묵히 참아온 블룸”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된다(Kiberd 127).

블룸은 남편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브린 부인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끼지만, 그녀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다. 그녀의 외모에 대한 다음 묘사는 의미심장하다.

두 해 전에도 입고 있던 그 파란 서지 원피스, 보풀 색이 바랬다. 이제 너무 낡은 옷이네. 귀 위로 성기게 흘러내린 머리카락. 그리고 그 볼품 없는 모자: 낡은 포도 세 알이 달려있어 그나마 흠을 가리려는 듯. 초라하지만 교양 있어 보이려는 차림. 한때는 옷 잘 입는 여자로 소문났었지. 입가엔 주름이 돌고. 몰리보다 겨우 한두 살 많은데. (U 8.265-68)

브린 부인은 블룸의 옛 연인으로 옛날에는 패션 감각이 뛰어난 여성이었다. 그러나 브린과 결혼한 후 현재의 모습은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 그녀의 옷은 낡았고, 모자도 볼품이 없어 초라하게 보인다. 외모도 머리카락이 성기고, 입가에는 주름이 있어 나이 든 모습이다. 블룸은 그녀를 몰리와 비교한다. 이를 통해 블룸이 브린 부인과 만나는 도중에도 몰리 생각을 하고 있고, 몰리와 결혼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지나가던 여성도 브린 부인을 “잔인한”(U 8.269) 눈빛으로 쳐다본다. 블룸은 브린 부인에 대해 실망한 표정을 감추려 하면서 음식 생각을 하지만,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멈출 수 없다.

[블룸]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길 너머로는 불만을 감추고 있었다. 푹 쏘는 거북이 수프, 쇠꼬리 수프, 인도식 매운 수프. 나도 배고프군. 그녀 원피스 옷깃엔 페이스트리 부스러기들, 불엔 설탕 친 밀가루 반죽이. 과일로 속이 꽉 찬 루바브 타르트. 예전엔 조시 파우엘이 그랬지. 오래전 루크 도일의 집에서요. (U 8.270-74)

블룸은 실망을 감추려 애쓰며 음식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보지만, 그녀의 옷과 얼굴에 음식 찌꺼기가 묻은 모습을 보고는 이제는 예전의 그녀가 아님을 직감한다. 흥미로운 것은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은 음식에 관한 장이기에, 블룸은 브린 부인이 조시 파우엘이던 시절에는 “과일로 속이 꽉 찬 루바브 타르트”(U 8.273)와 같았다고 비유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그녀가 결혼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15장 「키르케」는 환영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사실적인 내용이기보다는 깊이 숨겨져 있는 인물의 잠재의식을 보여준다. 노리스(Margot Norris)가 주장하듯이, 「키르케」는 프로이트(Freud)가 제기한 꿈의 심리학을 따르고 있다. 꿈은 “당사자가 하루 이틀 전 깨어있을 때의 생각에서 유래”했듯이, “「키르케」 장은 이전 에피소드의 ‘실제’ 세계나 블룸과 스티븐의 지식, 의무, 그리고 소망의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159). 이 장에 등장하는 블룸과 브린 부인은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 장에서 실제 만난 사실과 그들이 과거에 원했지만 실제로 할 수 없었던 내용을 표현한다. 두 사람이 흥등가에서 만나는데 이러한 장소 설정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지만, 흥등가는 그들 둘만의 은밀한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독자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과거 관계에 대해 알게 되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없는 현재의 심리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이야기는 브린 부인이 흥등가에서 우연히 블룸을 만나자 그를 책망하면서 시작된다. 블룸은 “타락한 여성을 구제”(U 15.402)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변명하지만, 브린 부인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브린 부인은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 장에서는 “파란 서지 원피스”(U 8.265)를 입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남성용 프리즈 외투”(U 15.386)를 입고 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외투 살 돈이 없어서 남자 옷을 입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궁지에 몰린 블룸은 브린 부인을 보고, “멋져 보이네요”(U 15.399-400)라고 그녀의 외모에 대해 찬사를 하면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블룸이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 장에서는 그녀의 외모를 줄곧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그녀에게 연정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없었지만, 이 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녀 외모의 평가는 의도적인 거짓말이지만, 그다음 장면은 블룸이 브린 부인에게 구애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블룸은 브린 부인에게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이는 블룸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잠재의식이다. 블룸은 그녀에게 포옹을 제안하지만 거절당하자, 다른 방식으로 그녀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내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울하게) 귀여운 영양

그림의 발렌타인 카드를 보낸 게 저예요”(U 15.434-35). 이 말에도 브린 부인이 여전히 거부반응을 보이자, 블룸은 그녀의 손목을 잡으면서 “조시 파우엘이었을 때 당신은 더블린 사교계에 들어온 가장 예쁜 처녀”(U 15.441-42)라고 말한다. 앞서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장에서 블룸이 조시 파우엘 시절의 그녀를 “과일로 속이 짝 찬 루바브 타르트”(U 8.273)에 비유했던 것을 떠올리면, 그의 이 발언은 일관된 기억에 기반한 진심 어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처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브린 부인이지만, 블룸의 이 따뜻한 말에 감동해 마음의 문을 연다. 그리고 블룸에게 “당신은 숙녀들이 항상 가장 좋아하는 신사”(U 15.448)였고, 블룸과 함께한 나날을 “이제는 잊혀진 그리운 날”(U 15.455)이라고 회상한다.

블룸의 잠재의식은 브린 부인과의 신체적 접촉으로 확대된다. 그는 브린 부인에게 “지금 성적으로 흥분된 상태”(U 15.458)인지 묻자, 브린 부인은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블룸의 “허리를 비비면서”(U 15.461) 신체 접촉을 한다. 그리고 브린 부인과 블룸은 조지너 심프슨(Georgina Simpson)의 집들이에 가서 경험한 낭만적인 밤을 기억한다. 이 부분은 몰리가 기억하는 그날 밤 이야기와 다른 부분으로 같은 사건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됨을 보여준다. 브린 부인은 “우리는 계단의 긴 의자에 앉아 있었죠. 겨우살이 나무 밑에서요. 우리 둘만이요”(U 15.461-62)라고 말하면서 둘만의 추억을 기억한다. 블룸은 그녀의 손에서 가시를 빼준 후에 루비 반지를 끼워주었다. 블룸은 “그때는 [그녀]가 [그]에게 전부”(U 15.477-78)였는데 그녀가 브린과 결혼해 그의 가슴을 찢어 놓다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부분을 통해 블룸이 브린 부인을 무척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브린 부인은 그들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은 것은 블룸이 “원했으면서도, 그 부위가 잘 낫도록 왜 키스해 주지 않았죠?”(U 15.487-88)라고 비난의 화살을 그에게 돌린다.

블룸은 브린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경마장에 간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블룸은 브린 부인이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밀리(Milly)와 몰리를 여러 번 언급하면서 그의 가족에 대한 애정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예를 들어, 그 당시 “밀리를 마리오네티라 불렀는데 그녀는 막 젖을 땀었지”(U 15.539-40). 몰리는 “네버텔(Nevertell)이라는 세 살배기 딸에 돈을 걸어 7실링을 땀었어”(U 15.546-47). “몰리는 조 깰러허 부인의 점심 바구니에 담겨있는 매운 소고기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어”(U 15.563-64). “몰리는 우리가 농가를 지나갈 때 로저스와 매것 오라일리가 수탉을 흉내 내는 모습을 보고 웃고 있었지”(U 15.570-71). 이러한 예는 몰리와 밀리의 사소한 일상을 보여주는데, 블룸은 그러한 사소한 일상에서 흥미와 기쁨을 매 순간 발견했음을 암시한다. 브린 부인과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블룸에게 그의 가족은 소중하다.

다음에 전개되는 블룸이 몰리와 브린 부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방식은 독특하고, 이를 통해 블룸의 몰리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블룸은 브린 부인이 그 당시에 “전성기”(U 15.548)였다는 덕담과 함께 그녀가 쓰고 온 새 모자에 대해 언급한다.

[당신의 새 모자]는 그 멋진 작은 타미 토크 모자의 반의반만큼도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타미 토크] 모자에는 극락조의 날개가 달려 있었고, 저는 당신이 그것을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감탄했어요. 그런데 그 새를 죽인 것은 안타깝네요. 당신은 잔인하고 장난꾸러기 같은 존재예요, 마음은 마침표 크기만큼 작은 속 좁은 사람이에요. (U 15.556-60)

블룸이 브린 부인에게 예전 모자(타미 토크)가 새 모자보다 더 잘 어울렸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모자에 대한 언급은 이야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블룸은 처음에는 예전 모자가 더 멋졌고, 브린 부인에게 참 잘 어울렸다고 칭찬하지만, 곧 그 모자를 만들기 위해 극락조를 죽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녀를 날카롭게 비난한다. 이 뜻밖의 질책은 브린 부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블룸이 몰리의 외모를 평가할 때에도 긍정과 부정이 뒤섞인 양가적인 시선을 드러내지만, 그 의미는 브린 부인에 대한 평가와는 본질적으로 다

르다. 다음에 이어지는 블룸과 브린 부인의 대화를 통해, 독자는 그가 몰리와 브린 부인 각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블룸: 솔직히 말해, 조언자나 찬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몰리]의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브린 부인: 너무

블룸: 네, 몰리는 웃고 있었어요, 우리가 농가를 지나갈 때 로저스와 매것 오라일리가 수탉을 흉내 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U 15.565-71)

위의 발췌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의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라는 블룸의 몰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듣고, 브린 부인은 그녀에 대해 험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블룸이 “그녀는(She was)”이라고 말하는 도중에 브린 부인이 끼어들어, 몰리는 “너무(too)”라고 부사를 사용하여 몰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블룸은 그녀의 의도를 알아채고 원래 하려는 말이 “몰리는 웃고 있었어요(Molly was laughing)”임을 보이면서 브린 부인에게 또 한 번의 패배감을 안겨준다. 이에 브린 부인은 블룸과의 대화를 그만두고 사라지게 된다. 블룸이 몰리는 “조언자나 찬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브린 부인이 상심한 또 다른 이유이다. 블룸이 ‘조언자나 찬미자’ 이야기를 한 것은 브린 부인의 타미 토크 모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녀에게 조언자가 한 명 있다는 설명에서 촉발되었다. 헤이스(Hayes) 여사가 그 조언자로서 그녀는 문제의 타미 토크 모자를 브린 부인이 “사도록 조언한 사람”(U 15.550)이다. 블룸은 몰리가 ‘조언자’뿐만 아니라 ‘찬미자’도 있다는 사실을 슬쩍 지적하였는데 이는 브린 부인의 열등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페넬로페」장에서 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브린 부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블룸이 이야기하듯이, “몰리와 조시 파우엘. 이상적인 남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가, 그 후로는 가뭄에 콩 나듯 간신히 한번 만나는 사이”(U 13.814-15)이다. 몰리는 브린 부인을 여전히 처녀 시

절 이름인 ‘조시 파우엘’로 부르며, 블룸을 둘러싼 조시와의 미묘한 삼각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풀어놓는다.

몰리가 조시를 떠올리게 된 것은, 블룸이 “성적으로 흥분한 채”(U 18.170)¹⁾ 집에 돌아왔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조시 파우엘을 만났기 때문”(U 18.169)이라고 그녀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몰리는 여전히 조시에 대해 경쟁심과 질투심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몰리는 “[자신]이 등장하기 전까지 [블룸과 조시]가 꽤 친하게 지냈던 것”(U 18.171)을 알고 있었고, 블룸과 연애하던 시기에도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의심해왔다. 몰리는 조지너 심프슨의 집들이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녀의 이야기는 브린 부인과 블룸이 「키르케」장에서 말한 낭만적인 밤과 전혀 다른 악몽의 밤이다. 몰리는 블룸이 조시와 “춤을 추거나 쉬고 있는 것을 보고”(U 18.171-72), 블룸에게 따진다. 블룸은 이때 “춤 상대가 없는 그녀가 보기 안쓰러워서 그랬다”(U 18.173-74)고 몰리에게 변명을 했다. 춤 이야기는 「키르케」장에서 블룸과 브린 부인의 집들이에 관한 이야기에는 없었다. 블룸과 브린 부인에게는 의자에 앉아 있는 둘만의 시간이 귀중한 시간으로 기억되어 춤춘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일어난 사건은 그 사건이 개인에게 미치는 정도가 다르므로 개인마다 각기 다르게 기억된다.

블룸을 두고 벌이는 조시와의 경쟁에서 몰리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조시 때문에 그와의 관계가 틀어져도 “언제든지 쉽게 그에게 화해하도록 할 수 있었다”(U 18.186-87). 몰리는 블룸이 “양과를 먹기를 거부할 때”(U 18.188-89)는 조시를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임을 직감한다. 블룸이 조시를 만나러 다시 나갈 때에도 다음과 같이 “해결할 방안”(U 18.186-87)이 있다.

나는 그에게 내 블라우스의 카라를 내려달라고 부탁하거나, 외출할 때 베일과 장갑을 낀 채 그를 살짝 건드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

1) 비평가 블래미어스(Harry Blamires)는 “set him off”(U 18.170)를 블룸이 “사정을 했다”(227)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블룸이 보일런보다 “정액이 더 많다”(U 18.168)라는 설명 뒤에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다 내가 키스를 하면 사내들이란 모두 녹아 떨어지지 그러나 그다음엔 그가 그녀에게 가게 내버려 두지요 물론 그녀는 너무나도 기뻐서 그와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진 척도 못할 거야 나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녀에게 가서 그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거야 그녀는 나를 당해낼 수 없을걸 (U 18.189-94)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몰리는 블룸이 조시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설사 블룸이 그녀에게 가더라도 그녀에게 찾아가 담판할 자신이 있다.

몰리는 조시와 삼각관계에 있지만, 블룸이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자질이 있음을 안다. 조시에게 사랑 고백을 할까 걱정이 되었지만, 블룸은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블룸이 자신에게 사랑 고백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U 18.196) 사실로 보아 블룸은 “자제력이 있고, 요구한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다”(U 18.197-98). 이러한 그에 대한 그녀의 기본적인 믿음 때문에 그녀는 보일런을 거부하고 블룸에게 돌아간다. 그녀는 블룸이 “아주 잘 생겼고 바이런 경처럼 보이려고 했다”(U 18.208-09)고 말한다. 심지어 “남자치고 너무 예뻐 보인다”(U 18.210)라고 잘 생겼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몰리의 블룸의 외모 평가는 사실인지 의구심이 든다. 「사이렌스」(“Sirens”) 장에서 바의 종업원인 케네디(Kennedy) 양과 도우스(Douce) 양은 “징글맞은 눈”(U 11.169)과 “징글맞은 코”(U 11.173)를 가진 블룸과 결혼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몰리의 블룸의 외모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시는 몰리와 함께 있을 때 블룸이 나타나면 반복적으로 특이한 행동을 보인다. 그녀는 몰리를 “포옹”(U 18.203)하거나, “끌어안고 어루만진다”(U 18.204). 몰리는 조시의 이러한 행동을 자신이 “[블룸]이라고 생각하고”(U 18.203) 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몰리는 또한 자신이 “몸을 위아래 가능한 한 전부 씻었다”(U 18.204)고 조시에게 말하자, 조시는 “가능한 부분이 어디인지 물었다”(U 18.205)고 말한다. 몰리는 조시의 행동을, “여자들

은 그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걸 자꾸 부추겨 일부러 그렇게 과장해서 말하잖아”(U 18.205-06)라고 해석한다. 조시의 이러한 행동은 블룸의 관심을 끌어보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 블룸에 대한 그녀의 잠재된 욕망을 짐작할 수 있다.

몰리는 블룸과 약혼 후에 조시에 대한 승리감에 젖게 된다. 몰리가 조시 앞에서 웃음을 멈추지 않자, 조시는 기분 나빠 한다. 몰리는 그녀의 “입에 군침이 돌 정도로만”(U 18.216) 블룸과 한 일을 말하면서 그녀의 질투심을 유발한다. 몰리가 블룸과 결혼하자, 조시는 그들의 집을 별로 방문하지 않는다. 이제 블룸을 사이에 두고 행해진 몰리와 조시의 경쟁은 끝난 것이다. 그렇지만 몰리는 각기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현 상황을 보여주면서 조시와의 경쟁에서 지금도 이기고 있다고 말한다. “정신 나간 남자”(U 18.218)인 브린과 결혼한 조시는 얼굴이 “아워서 아주 꼴불견”(U 18.218-19)이다. 몰리가 묘사한 조시의 최근의 모습은 블룸이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장에서 그녀를 묘사한 장면과 비슷하다. 조시는 몰리에게 남편이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 잠자리에 들어온다”(U 18.222-23)며 험담을 한다. 그리고 브린은 엽서를 보낸 이를 고소하기 위해 “슬리퍼”(U 18.228)를 신고 거리를 돌아다닌다. 정신 나간 브린은 신발이나 발 관리를 하지 못한다. 반면에 블룸은 “무엇을 하든 간에 비가 올 때나 맑을 때나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발을 매트에 닦고, 구두도 검은색으로 항상 닦는다”(U 18.225-26)고, 몰리는 남편 자랑을 한다. 몰리는 자기 자신도 대단한 아내임을 강조한다. 그녀는 “나 같은 여인을 발견할 수 없을 거야”(U 18.232-33)라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보인다. 몰리는 브린이 아니라 블룸의 아내가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블룸’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브린’보다 더 낫다. 몰리는 블룸과 결혼 후에 조시가 자신에게 “당신은 꽃이 피는 것처럼 보여요”(looking blooming, U 18.843)라고 자주 말한 것을 상기하면서 ‘블룸’이란 성의 긍정적 의미를 생각한다. 몰리는 ‘브린’이란 성이 ‘감옥,’ ‘가두다’의 의미를 지닌 ‘브리그스’(Briggs, U 18.844)를 상기시키기에 ‘블룸’이란 성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몰리는 블룸과 조시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지만, 일곱 번째 문장에서는 생각을 바꾼다. 조시가 자신이 “버린 것에 홀릴 수 있기에”(U 18.1253) 블룸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몰리는 블룸이 그런 성향의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녀는 블룸이 “결혼한 여자와 역할 용기가 없다”고 단언하며, 오늘 블룸이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는 “어린 여자애”(U 18.1255)일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실제로 몰리의 예상대로 블룸은 「나우시카」(“Nausicaa”) 장에서 거티와 일시적인 연애 행각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키르케」 장에서 드러난 블룸의 잠재의식은 몰리의 예측이 완전히 맞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블룸이 여전히 과거의 이루지 못한 욕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몰리가 알지 못한다는 점은, 어쩌면 그녀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12장 「키클롭스」에는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는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한다. 첫 번째 화자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화자로, 그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만을 품고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다. 이 화자는 이름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바니 키어넨(Barney Kiernan’s)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내부 화자이다. 두 번째 화자는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과장법을 사용하여 다소 긍정적인 견해를 들려주는 화자로, 삽입 형식으로 등장하고 실제 인물로는 등장하지 않는다. 마릴린 프렌치(Marilyn French)는 이 화자를 “외부 화자”로 인정하지만(141), 캐런 로런스(Karen Lawrence)는 또 하나의 화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두 번째 화자는 첫 번째 화자의 이야기를 “패러디하여 이야기를 다시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102). 비평가들은 두 번째 화자의 존재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지만, 이 두 화자는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묘사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러한 두 화자의 인물묘사 방식은 브린 부부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이한 것은 로런스의 설명과 달리 두 번째 화자가 먼저 브린 부부를 묘사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화자가 그들을 묘사한다.

긍정적이고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두 번째 화자는 우스꽝스러운 인물

인 브린 부부를 아일랜드 최고의 남녀로 묘사한다. 화자는 브린을 “고귀한 태도와 용모를 지닌 지도자(elder)”로서 그는 “율법의 성스러운 두루마리를 지니고 있었다”(U 12.246-47)고 터무니없이 미화한다. 이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 온 브린, 즉 우편 엽서를 보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 위해 법전을 들고 다니는 그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는 브린 부인을 “뛰어난 혈통을 지닌 귀부인이자 그 민족 중 가장 아름다운 여인”(U 12.247-48)으로 지도자인 브린에게 걸맞은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장에서 블룸이 묘사한 나이가 들고 초췌한 외모의 브린 부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이어서 전개되는 단락에서 첫 번째 화자는 브린 부부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다. 브린은 “경치게도 늙은 얼간이”로 “욕실 슬리퍼를 끌고 겨드랑이에 경치게도 큰 책 두 권을 끼고”(U 12.253-54) 있고, 브린 부인은 남편 “뒤를 황급히 따라가는 불쌍한 부인으로 마치 푸들처럼 종종 걸음으로 가고 있었다”(U 12.255). 여기서 브린이 ‘욕실 슬리퍼’를 신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에서 브린이 “파란 캔버스 신발”(U 8.310)을 신고 있다는 설명과 배치된다. 몰리도 브린이 “슬리퍼”(U 18.228)를 신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키클롭스」장의 부정적인 화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브린이 ‘욕실 슬리퍼’를 신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가 정신이 나갔다는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준다. ‘경치게도’(bloody)라는 단어는 『더블린 사람들』의 출판 과정에서 출판업자인 그랜트 리처즈(Grant Richards)가 조이스에게 삭제를 요구한 단어인데(Gabler 116), 부정적인 화자는 브린을 묘사하는 데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부정적인 화자는 브린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그를 따라다녀야 하는 브린 부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더욱이 브린 부인을 개와 견주어서 묘사하여 그녀의 맹목적인 추종도 비판하고 있다.

브린 부부가 「키클롭스」장에 다시 등장하자, 블룸은 브린 부인을 동정하면서 “그 말 더듬는 바보 노인을 따라다녀야 하는 아내에게 그건 너무 잔인한 거야”(U 12.1060-62)라고 말을 한다. 이에 첫 번째 화자는 블룸

의 말을 비꼬면서, “경치게도 가난에 찌든 브린을 수염이 땅에 걸려 넘어지게 풀밭에 내보내는 것은 짐승에게도 잔인한 짓이지”(U 12.1062-63)라고 말하는데, 이번에도 ‘경치게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격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브린을 비판한다. 블룸은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 장에서처럼 브린 부인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지만, 부정적인 화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더욱이 브린 부인이 남편과 결혼하게 된 동기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녀는 “남편의 당숙 어른이 교황의 좌석 안내인”(U 12.1065)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이것은 물정을 모르고 나대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화자는 문체의 그 당숙 어른은 “주당 7실링에 방 두 칸짜리 셋집에 살면서 세상에 맞서겠다는 듯 온갖 휘황찬란한 휘장을 걸치고 있는 형편없는 사람이다”(U 12.1068-70)라고 말한다. 화자는 이런 친척을 자랑스러워하는 브린 부인을 비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III. 나가는 말

조이스는 『율리시스』에서 복수의 화자를 사용하여 특정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하게 하거나 경험하게 하여 이야기의 실체를 다면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 위해 일인칭 화자의 사용은 필수적이지만, 조이스는 전통적인 일인칭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서술 기법을 구사한다. 「페넬로페」 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몰리만이 일인칭 화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내면과 경험을 독백 형식으로 풀어낸다. 반면 「키클롭스」 장에서는 일인칭 화자가 주요 서술자 역할을 맡아 사건을 관찰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화자의 목소리가 등장하여 이야기의 시점을 다양화한다. 그 외의 여러 장에서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 속에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삽입함으로써, 블룸과 스티븐의 내면을 일인칭 화자의 시선처럼 생생하게 전달한다. 특히 「키르케」 장에서는 인물의 잠재의식을 극화하는 형식을 통

해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그들을 평가하게 만드는, 또 다른 차원의 서술 방식을 선보인다.

브린 부인은 『율리시스』에 등장하는 군소 인물 중의 한 사람이지만, 조이스는 다양한 화자를 등장시켜 그녀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키클롭스」장에서 두 화자는 화자의 성격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브린 부인과 그녀의 남편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블룸과 몰리의 경우에는 그들의 브린과의 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를 한다. 블룸은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장에서 그녀를 옛 연인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현재 초췌하게 변해버린 그녀에게 연민을 느낀다. 이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블룸과 브린 부인의 관계는 「키르케」장에서 그들의 이루지 못한 과거의 욕망으로 극화된다. 몰리는 「페넬로페」장에서 블룸을 두고 벌어지는 조시와의 미묘한 삼각관계 관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블룸과 몰리는 브린 부인을 각기 다른 시각에서 평가하지만, 흥미롭게도 블룸은 브린 부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몰리를 떠올리고, 몰리는 블룸을 생각한다. 따라서 브린 부인은 블룸과 몰리가 서로의 유대감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촉매제로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율리시스』에서는 서로 다른 인물들이 브린 부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이 서로 다르게 해석되거나 기억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현실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로,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 인식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한다. 독자는 이처럼 브린 부인에 대해 제시된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여, 그녀의 인물상을 다각도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다양한 관점을 포함한 소설에서 독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독자는 “다양한 관점과 출처에서 제공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며, 무엇이 정확한지, 무엇이 편향되었는지를 식별한 후 이를 일관된 이야기로 만들어야 한다”(Koss 79). 이러한 독자의 적극적인 역할은 『율리시스』가 ‘읽는 텍스트’(readerly text)가 아니라 ‘쓰는 텍스트’(writerly text)임을 보여준다. ‘쓰는 텍스트’는 “독자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독자는 작가가 제시한 이미지, 사건, 세팅을

직접 연결해야 한다”(Sumara and Luce-Kapler 390). 브린 부인의 예에서처럼, 조이스는 작품 전반에 걸쳐 한 인물에 대한 파편적인 정보와 시선을 흩어놓음으로써 『율리시스』를 난해하고 혼란스럽게 보이게 만든다. 조이스는 이처럼 무질서하게 보이는 작품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독자에게 위임함으로써, 독자 중심 글쓰기를 실현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고려대)

인용문헌

- 이석영. 「『나 누워 죽어갈 때』의 서술 기법」. 『현대영미어문학』, 제32권 2호, 2014, pp. 133-52.
- Blamires, Harry. *The New Bloomsday Book: A Guide Through Ulysses*. Routledge, 1996.
- Bransford, Nathan. *All about Perspectives in Novels*, nathanbransford.com/all-about-perspectives-in-novels. Accessed 10 Apr. 2025.
- Chillur, S. M. “William Faulkner as an Innovative Narrative Artist.” *International Journal of Creative Research Thoughts*, vol. 11, no. 3, 2023, pp. 200-05.
- French, Marilyn. *The Book as World: James Joyce’s Ulysses*. Harvard UP, 1976.
- Friedman, Norman. “Point of View in Fiction: The Development of a Critical Concept.” *PMLA*, vol. 70, no. 5, 1955, pp. 1160-84.
- Gabler, Hans Walter. *Genetic Inroads into the Art of James Joyce*. Open Book Publishers, 2024.
- Hayman, David. ‘Ulysses’: *The Mechanics of Meaning*. 1970. U of Wisconsin P, 1982.
- Kiberd, Declan. *Ulysses and Us: The Art of Everyday Living*. W. W. Norton & Company, 2009.
- Koss, Melanie D. “Young Adult Novels with Multiple Narrative Perspectives.” *The ALAN Review*, vol. 36, no. 3, 2009, pp. 73-80.
- Lawrence, Karen. *The Odyssey of Style in Ulysses*. Princeton UP, 1981.
- MasterClass. *How to Write Multiple Perspectives: 5 Tips for Switching Points of View*, 2021, www.masterclass.com/articles/how-to-write-multiple-perspectives#5-tips

-for-writing-from-multiple-points-of-view. Accessed 10 Apr. 2025.

Norris, Margot. *Virgin and Veteran Readings of Ulysses*. Palgrave MacMillan, 2011.

Somer, John. "The Self-Reflexive Arranger in the Initial Style of Joyce's 'Ulysses'." *JJQ*, vol. 31, no. 2, 1994, pp. 65-79.

Soule, Charles. *A Change in Perspective: Tips for Writing from Multiple Points of View*, 2018,

www.writersdigest.com/there-are-no-rules/a-change-in-perspective-writing-from-multiple-povs. Accessed 10 Apr. 2025.

Sumara, Dennis J., and Rebecca Luce-Kapler. "Action Research as a Writerly Text: Locating Co-labouring in Collaboration." *Educational Action Research*, vol. 1, no. 3, 1993, pp. 387-95.

AbstractMultiple Perspectives in *Ulysses*: Stories about Mrs. Breen

Seokmoo Choi

In *Ulysses*, James Joyce employs multiple narrators to observe or experience particular events from various angles, thereby uncover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what actually happened. While the use of a first-person narrator is traditionally necessary to express a character's unfiltered opinions, Joyce adopts a narrative technique that diverges from conventional first-person narration. Mrs. Breen, though a minor character in *Ulysses*, is depicted through a range of narrative voices, each presenting different perspectives about her. In the "Cyclops" episode, two narrators portray Mrs. Breen and her husband in contrasting lights—one positively, the other negatively—reflecting their own character traits and biases. Bloom and Molly, too, evaluate the Breens differently based on their individual relationships with them. In the "Lestrygonians" episode, Bloom views Mrs. Breen from the perspective of a woman he once had feelings for, feeling pity for the poor and aging woman she has become. Their unfulfilled desires from the past—unstated in this chapter—are dramatized in the "Circe" episode. Molly, in the "Penelope" episode, recounts her version of the story through the lens of a subtle love triangle involving Bloom and Josie. Although Bloom and Molly each form distinct impressions of Mrs. Breen, Bloom thinks of Molly while reflecting on Mrs. Breen, and Molly, in turn, thinks of Bloom. In this way, Mrs. Breen functions as a catalyst that reaffirms the bond and love between Bloom and Molly. Thus, the reader must synthesize the various perspectives on Mrs. Breen to evaluate her character in a multidimensional manner.

■ **Key words** : James Joyce, *Ulysses*, multiple narrators, multiple perspectives, writerly text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복수화자, 다양한 관점, 쓰는 텍스트)

논문접수: 2025년 5월 25일

논문심사: 2025년 5월 25일

게재확정: 2025년 6월 19일